

숨은그림찾기 < 71 >



찾아보세요 음표, 뚝, 종이배, 서툴룩, 펜촉, 왕관, 다리미, 열대어, 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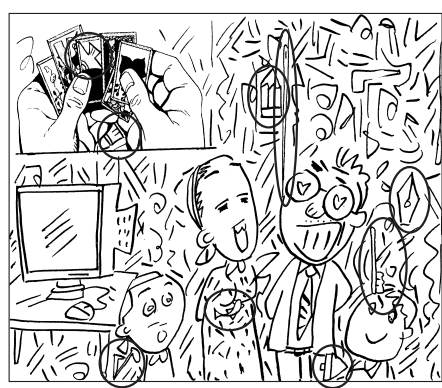
야한 닭집

아주머니가 양계장에 가서 계란을 한 판 샀다. 집에 와서 계란 하나를 프라이팬에 삶다.

그런데 아라, 계란 노른자가 두개다. 기분이 나쁜 아주머니가 양계장에 가서 항의를 했다. 주인이 "닭들 다 모여" 하고 닭들을 불렀다.

주인 하는 소리 "아저씨가 닭을 부르면 닭이 나오지."

아주머니는 바뀌 온 계란을 또 삶다. 그런데 어렵소, 이번에는 노른자가 아예 없네. 아주머니가 또 양계장으로 갔다. 이번에도 주인은 닭들을 불러모았다. "아저씨가 피입한 닭이 나오지."



지난주 정답

팽이, 몽당연필, 칫솔, 송사리, 열대어, 바늘, 음표, 서툴룩, 펜촉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 당첨자: 정영아(여수시 학생) 김민선(화순군 화순읍)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5일 MLB 전설 '사이 영' 최초 퍼펙트 게임 기록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사이영상.

매년 메이저리그 최우수 투수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은 미국의 야구명수 사이 영을 기리기 위한 것.

프로야구계의 전설이 된 사이 영은 통산 511승을 거뒀다. 1890년 23세 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전신인 클리블랜드 스파이더스에 입문해 메이저 리그에서 22년간 뛰면서 연평균 23.2 승씩을 거뒀는데, 역대 최고 기록이며 여지껏 깨지지 않고 있다.

개인통산 511승은 미국 일간지 여론조사에서 가장 깨끗이 힘든 기록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751경기를 완투하고 7천356이닝을 던진 강철 어깨였다. 이 또한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오죽하면 55년 사망하기 전에 그가 "요즘에는 투수들이 너무 많아. 선발이 4명이라니, 매일 던지면 되잖아"라고 했을까.

이 뿐만 아니다. 1891년부터 14년간 매년 20승 이상을 올리는 신화적 기록도 그가 세웠다. 30승 이상을 거둔 해만 5번.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최초 퍼펙트 경기 기록도 사이 영이 갖고 있다. 103년전인 지난 1904년 5월 5일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꿈의 기록'인 퍼펙트 게임을 이뤄냈다. 야구 선수로는 전성기를 지난 만 37세때다.

상대팀 필라델피아 애틀렉틱스는 이날 9회 경기가 끝나도록 한 명의 타자도 1루를 밟아보지 못했다. 무사사구, 무안타의 완벽한 투구로 9이닝을 3자범퇴 처리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퍼펙트 게임은 한번도 없었다. 그가 세운 노히트노런은 3차례. 세번째 노히트노런은 야구 선수로 치면 '환갑'인 41세 때에 기록했다.

사이영의 본명은 '테트 트루 영'. 팬들은 사이클론(미 대륙을 덮치는 폭풍우)처럼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해 그를 '사이 영'이라고 불렀다. 그는 1911년 44세에 은퇴할 때까지 야구의 역사를 쓰면서 투수의 대명사가 됐다.

1937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사망한 뒤인 1956년 그의 이름을 딴 '사이영'상을 제정, 수여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프로야구계의 전설 사이 영. 사이클론(미 대륙을 덮치는 폭풍우)처럼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해 팬들이 그를 사이 영으로 불렀다.

뉴스퀴즈

62.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회장의 주택(대지면적 649평·건물 연면적 1천40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평가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공사비(91억4천만원)로, 작년보다 6억2천만원이 오른 것이며 실제 가격은 1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 1 이근희 회장 2 정몽구 회장 3 박삼구 회장 4 김승연 회장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노트북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시시 추첨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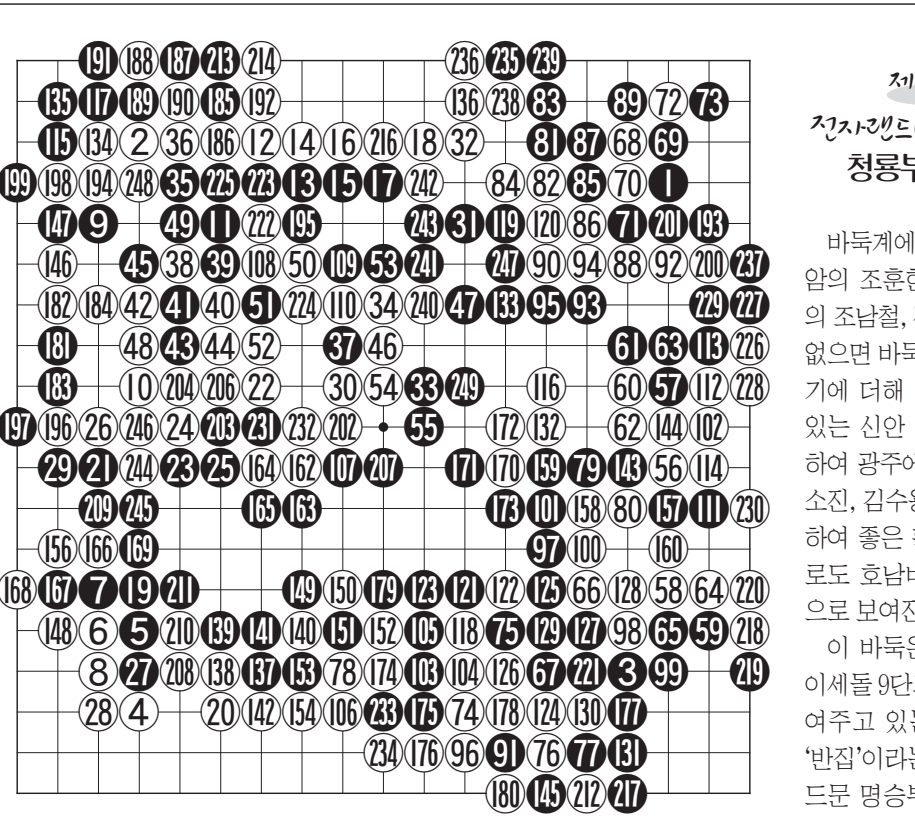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일 (음 3월 16일 丙申)

Table with 12 rows of daily horoscopes for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birth years and lucky/unlucky number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child,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바둑소식' (Baduk Sosik) magazine, featuring a photo of a Go board and text about the magazine's content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굿모닝 잉글리쉬 < 895 >

I wasn't born yesterday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A: That will be two hundred dollars, sir.
B: Do you take me for a fool? The bill should be eighty.
A: You are really a sharp businessman.
B: I wasn't born yesterday.
A: When I first met you, you were like a baby in the woods.
A: 선생님, 그것은 200달러가 되었습니다.
B: 당신은 저를 바보 취급하는군요? 계산서는 80달러예요.
A: 정말 예리한 비즈니스맨이시군요.
B: 저는 세살짜리 어린이가 아니에요.
A: 손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오하오우 니혼고 < 895 >

先(さき)が思(おも)いやられますね
장래가 걱정되는군요
A: この頃(ごろ)スバで、生徒(せいと)の萬引(まんびき)が増(ふ)えているようです。
B: そうなんですか。昔もありませんか。
A: でも、かなり深刻(しんこく)な問題らしいですよ。
B: 先(さき)が思(おも)いやられますね。
A: 요즘 슈퍼에서 학생들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A: 하지만, 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B: 장래가 걱정되는군요.
生徒(せいと) : 학생(중·고교생)
増(ふ)える : 늘어나다
かなり : 꽤
思(おも)いやられる : (장래, 앞날)염려되다

니하오 쑹구워 < 86 >

我买了很多东西
나는 물건을 매우 많이 샀어
A: 你去逛街了?
Ni qu guang jie le?
니 취 광잉 째에 리?
B: 对, 我买了很多东西。
Dui, wo mai le hen duo dongxi.
뚜에이, 워 마이 러 혼두 동희.
A: 买了什么?
Mai le shenme?
마이 러 셴머?
B: 有吃的, 有穿的, 有玩的, 有用的。
You chide, you chuande, you wande, you yongde.
여우 초 더, 여우 추안 더, 여우 우안 더, 여우 용 더.
A: 너 밖에 구경 나갔었니?
B: 음, 물건을 많이 샀어.
A: 뭐 샀어?
B: 먹을 것, 입을 것, 놀 것, 사용할 것이 있어.
吃的 [chide] 먹을 것
穿的 [chuande] 입을 것
玩的 [wande] 놀 것
用的 [yongde] 사용할 것, 쓸 것

한자 이야기 < 512 >

青天霹靂 (청천벽력)
뜻밖의 재앙
뜻밖의 재앙, 하늘 천, 벼락 벽, 벼락 벽
청천벽력(靑天霹靂)은 맑게 갠 하늘의 벼락이란 뜻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무서운 일이나, 큰 사건, 이변(異變)등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말은 남송(南宋)의 대시인 육유(陸游)의 '검남시곡' 중 '9월4일 닭이 아직 울기 전에 일어나 지음(九月四日鷄未鳴起作)'이라는 시에 나오는 오언절구의 끝 구절에 보인다.
방옹(放翁)이 병으로 가을을 지내고, 放翁病後
흘런히 일어나 술 취한 듯 글을 쓰니 忽起作辭罷
바로 오래 동안 음추했던 음과 같아 正如久蠶龍
푸른 하늘에 벼락 치는 것 같네 靑天飛霹靂
그런데 이 청천벽력은 예기치 못했던 돌발(突發)사고 중에서도 불행한 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의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예를 들면,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내 아들이 죽다니!" 등과 같이 쓰이고 있다.